

# ‘가을야구’ 호랑이, 두 토끼 사냥 행보 ‘2016’



윤석민이 9회말 2사 1.2루에서 한화 조인성을 3루땅볼로 처리하며 경기를 마무리짓고 환호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가을야구

윤석민 7회 등판 강수  
에반·최희섭 복귀 시동

5강과 2016시즌, 두 가지 목표를 향한 KIA 타이거즈의 다른 행보가 펼쳐진다. 2015시즌 종료까지 이제 한 달이 남았다. KIA는 내달 3일 두산과의 홈경기를 끝으로 올 시즌 144경기의 일정을 끝내게 된다. 시즌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가을 잔치를 위한 마지막 타겟의 향방은 오리무중. KIA는 5강을 위한 막판 스피트를 해야 한다. 5강 싸움에 전개되고 있지만 2016시즌에 대한 구상도 시작해야 한다. KIA 2군은 3일 합평 챌린저스 필드에서 삼성과의 2015 시즌 최종전을 치렀다. 4일(합평), 10·11일(경산) 삼성과의 연습경기 일정이 잡혀있지만 공식적인 리그 일정은 종료됐다. 2016시즌을 위한 농사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 시점이다. 끝나지 않은 5강 싸움을 위해 김기태 감독은 전력 극대화를 위해 고심을 하고 있다. 2일 청주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는 남은 경기의 운영 방향을 보여준다. 김 감독은 7회 2사 1·2루에서 마무리 윤석민을 투입했다. 6연패의 상황에서 4-2의 리드를 지키기 위한 강수였다. 아슬아슬한 위기도 있었지만 결과는 5-4 승. KIA는 8월26일 윤석민이 SK 정상호에게 끝내기 스리런을 맞은 뒤 시작된 연패를 윤석민의 56구 투구로 겨우 끊어낼 수 있었다. 김 감독은 “힘든 상황이기도 했지만 연패중이라서 윤석민에게 많은 역할을 맡겼다”고 언급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5강 싸움을 펼쳐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감독의 구상에는 에반의 복귀도 있다. 팔 근육통으로 엔트리에서 빠진 에반은 4일 캐치볼을 시작할 예정이다. 순조롭게

## 2016 시즌

한승택 등美 교육리그 참가  
신진 ‘군 로테이션’ 분주

복귀 준비가 된다면 엔트리 등록이 가능한 10월 다시 불펜에 힘을 보탤 수 있을 전망이다. 확대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내야 쪽에서도 합류를 할 수 있는 자원이 남아있기는 하다. 허리 통증으로 페이스를 조절했던 ‘빅초이’ 최희섭이 3일 평고 훈련을 소화했고, 팔꿈치가 좋지 않아서 치료를 받았던 강한울도 2군 최종전에는 모습을 드러냈다. 치열하게 전개될 5강 싸움 뒤에서는 2016시즌을 위한 준비가 시작된다. 오는 20일 20명의 선수가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KIA는 지난해에 이어 미국 애리조나에서 진행되는 교육리그에 선수단을 파견해 한 달 가량 선진 야구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 제대와 함께 지난해 교육리그에 참가하며 경험을 쌓은 투수 홍건희처럼 포수 한승택이 경찰청 제대와 함께 교육리그에 참가해 2016시즌을 위한 스타트를 일찍 끊을 예정이다. 투수 문경찬 등 경험과 힘이 필요한 선수들은 올 시즌이 끝난 뒤 군 복무를 시작하게 하는 등 효율적인 ‘군 로테이션’을 위한 막바지 작업도 분주하게 이뤄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5강 가는길 1967km

프로야구 잔여경기 일정이 확정됐다. ‘호랑이 군단’은 남은 시즌 만만치 않은 이동거리를 소화해야 한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지난 2일 오전으로 순연된 70경기와 미연성된 5경기를 합한 총 75경기에 대한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에 편성된 75경기는 9월 15일(화)부터 10월 3일(토)까지 진행된다. KIA는 이 기간 15일 한화와의 홈경기를 시작으로 10월3일 두산과의 홈경기까지 총 16경기를 치른다. 광주를 시작으로 문학-광주-마산-광주-잠실-사직-광주로 이어지는 여정이다. KIA는 15·16일 한화와 안방에서 2연전을 치른 뒤 17일 kt와 올 시즌 최종전을 갖는다. 이후 문학으로 올라가서 SK와 19일부터 21일까지 3연전을 치른다. 22·23일 안방에서 LG와 만남을 갖는 KIA는 24일 마산에서 NC와 시즌 마지막 대결을 갖

프로야구 잔여경기 일정 확정  
KIA 16경기 ‘이동과의 싸움’  
더블헤더·월요일경기 ‘변수’도

은 뒤, 홈으로 복귀해 26일 SK와 대결한다. 하루 휴식일을 보낸 뒤에는 28일 잠실에서 LG와 최종전을 치르고 사직으로 건너가 롯데와 29·30일 2연전을 갖는다. 2015시즌의 대미는 안방에서 장식한다. 10월1일 삼성을 상대하는 KIA는 2·3일 두산과 2연전을 갖고 올 시즌 대장정을 끝낸다. 한편 이 기간 우천 등으로 경기가 취소될 경우 예비일을 활용하게 된다. 예비일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날 더블헤더, 동일대전의 둘째 날 더블헤더, 동일대전 싱글 경기 더블헤더, 추후편성 순으로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단 한 팀이 7연전까지만 치르며 이를 연속 더블헤더는 실시하지 않는다. 또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기준으로 더블헤더 포함 8경기 이상 편성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9월 12일·13일 경기는 취소되더라도 14일에는 경기를 진행하지 않는다. 더블헤더 제1경기는 평일과 토요일에는 오후 3시,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오후 2시에 시작된다. 제2경기는 제1경기 종료 후 20분 뒤 진행된다. 더블헤더 제1경기는 연장전이 9회까지 치른다. 우천으로 연기되는 경기가 포스트시즌 진출팀과 관계없는 대전일 경우 포스트시즌의 이동일에도 경기가 진행된다. 정규시즌 4·5위 및 4·5위 결정과 관계없는 팀간의 경기는 정규시즌 최종일과 와일드카드 결정전 개막일 사이의 이동일에 치러질 수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덕아웃 T 특·특

### “흠뻑 치렀더니...2루타 1타점 이성우, 감독 지시 불이행”

▲판을 흔드는 불은 던지지 말아라  
마무리 윤석민의 팼볼이 화제가 됐다. 윤석민은 2일 한화전에서 7회 2사에 등판해 9회 마지막 아웃카운트까지 책임졌다. 윤석민의 긴 이닝도 이닝이었지만 경기 도중 선보인 ‘팼볼’에 더 관심이 쏠렸다. 윤석민의 입장은 “구위가 좋지 않아서 팼볼을 던져봤다”였다. ‘팼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주장 이범호는 “판을 흔드는 불은 던지지 말아라”는 농담을 하며 웃었다. 윤석민의 ‘팼볼’과 이범호의 ‘판볼’이었다.

▲감독 지시 불이행이야  
2일 KIA의 연패 탈출에는 포수 이성우가 있었다. 이성우는 4-3으로 쫓기던 8회 좌중간 펜스 맞는 급작한 타구로 값진 1타점을 올렸다. 복귀 후 첫 타석에서 귀한 안타를 때려 준 이성우였지만 김기태 감독의 반응은 “감독 지시 불이행이야”였다. “감독이 흠뻑을 치라고 하는데 2루타를 치더라”며 웃은 김 감독은 “고마웠다. 선수들이 다 좌측을 보느라 다행히 내 표정을 못 봤다”고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아 떨려요  
롯데 덕아웃 앞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던 선수. 2016 신인 드래프트에서 롯데로부터 가장 먼저 이름이 불린 순천 효천고 좌완 한승혁이 챔피언스필드를 찾았다. (사진) 부산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하게 된 한승혁은 롯데의 경기에 맞춰 덕아웃을 찾아 이종문 감독에게 인사를 드렸다. 덕아웃으로 걸음을 옮기기 전 한승혁의 소감은 “아 떨려요”였다.

한승혁은 “예상 못 했는데 1차에서 뺏히게 돼서 기쁘다. 3학년 들어 제구가 많이 좋아졌고, 스피드도 올랐다. 아직도 프로 선수가 된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 송승준 선배처럼 꾸준한 선수가 되고 싶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동맹이인 KIA 한승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효천고 한승혁은 “열심히 해서 한승혁 선배님보다 더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는 당찬 각오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KLPGA 김예진 ‘신인왕’ 역전 레이스 시동

2015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시즌 ‘루키’ 김예진(20·요진건설)이 한화금융클래시 첫날 신인왕 역전 레이스를 향해 시동을 걸었다. 김예진은 3일 충남 태안의 골든베이 골프장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6개에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쳐냈다. 배선우(21·삼천리)도 김예진과 동타를 이뤄 공동 선두에 올랐다. 김예진은 올 시즌 신인왕 포인트에서 1천69점을 받아 1천281점인 1위 박지영(19·하이원리조트)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이번 대회는 총상금 12억원이 걸린 특

급대회로 우승자에게는 상금 3억원과 함께 메이저대회와 같은 신인 포인트 310점이 주어진다. 박지영과는 212점 차이여서 우승을 차지한다면 역전도 가능하다. 박지영은 1라운드에서 1오버파 73타를 쳐 중위권에 머물렀다. 10번홀에서 출발한 김예진은 전장이 길고 리프가 깊은 어려운 코스에서 전반에만 2타를 줄였다. 후반에는 3번홀에서 4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 상승세를 이어간 김예진은 4번홀(파5)에서도 1타를 줄였다. 8번홀(파5)에서는 22야드를 남기고 친 웨지 샷을 집인 버디로 연결시키는 등 기분 좋게 첫날을 마쳤다. /연병뉴스

## 광주시청 육상, 전국실업단대항 금5·은1

김덕현 ‘선수 보호’차 제외  
광주시청 육상팀이 ‘전국실업단대항 육상경기대회’에서 금메달 5개와 은메달 1개를 수확하는 성과를 올렸다. 100m 한국기록보유자인 김국영 선수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여수 망마경기장에서 열린 ‘제 27회 전국실업단대항 육상경기대회’ 200m 결승에서 20초 85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국영은 400m 계주에서도 정현석·송만석·임희남과 배턴을 주고받으며 40초 07로 가장 먼저 끝인, 금메달을 추가했다. 이준도 400m에서 47초75로 가장 먼저

결승타이를 끊었다. 박태경도 110m 허들에서 14.54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배찬미도 금빛 도약에서 빠지지 않았다. 배찬미는 세단뛰기에 나서 13m34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장지용은 400m 허들에서 52초10을 기록, 은메달을 획득했다. 국내 도약 종목 ‘갑판’인 김덕현 선수는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심재용 광주시청 육상 감독은 “선수 보호 차원에서 김덕현 선수가 출전하지 않았는데도 금메달 5개를 수확했다”고 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여수 망마경기장에서 치러진 제27회 전국실업단대항 육상경기대회에서 광주시청 육상팀(감독·심재용)이 금메달 5개 등을 획득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